

평택호 상류지역 참붕어에 있어서
간흡충 피낭 유충의 조사 성적

전계식, 김태선*

용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

1997년 10월부터 동년 11월에 걸쳐서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당거리와 길음리를 중심으로 한 평택호 상류 지역에 대하여 간흡충의 대표적인 제 2중간 숙주인 참붕어(*Pseudorasbora parva*)에 대한 간흡충피낭유충의 기생상황을 조사하였다. 포획한 참붕어를 실험실로 운반한 후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고 개체별로 유발로 마쇄한 다음 인공소화액(pepsin-HCl 용액)으로 37℃ 배양기에서 약 1시간 동안 소화시켰다. 소화된 내용물을 셀라린으로 washing하고 상층액이 맑아질 때까지 생리식염수를 보충해 주면서 이 조작을 반복한 다음, 입체 현미경하에서 간흡충의 피낭유충을 분리수거하였다. 어체에 대한 간흡충피낭유충의 양성율은 77.5%(31/40)이었으며 참붕어 40마리에 대한 피낭 유충 기생수는 406개로서 양성어 1마리당 피낭유충 기생수의 평균은 10.2개(0-112개)였다. 어체 크기 별로는 70-79mm군에서 90개(평균 11.3개), 60-69mm군에서는 202개(평균 10.1개), 50-59mm군에서는 114개(평균 9.5개)의 피낭유충이 검출되었다. 이번 조사에 있어서 평택군 오성면 당거리와 길음리 주변의 평택호 상류지역은 간흡충 피낭유충이 고율로 다수 기생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으며 참붕어가 간흡충의 호적 숙주임이 확인되었다.